

지속적인 자본주의는 가능한가

존 이커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해체 이후, 자본주의는 세계의 주요 경제 체제로 자리 잡았다. 심지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정치 체제를 택했었던 나라들조차 거의 예외 없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로 옮겨갔다. 과거 2백 년 동안 전 세계 산업주의 경제국가에서 이룩한 유례없는 생산성 향상이 자본주의의 확산을 뒷받침하고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 또한 발전에 있어서 산업주의 전략을 택했기에, 자본주의의 성공이 순전히 산업화에만 기인했다고는 볼 수 없었다. 독특하게도 자본주의는 좁은 의미에서 개별적인 이익을 강조하기 때문에 전문화, 표준화, 지배력 강화라는 산업 전략과 상호보완 관계였다. 자본주의와 산업주의의 결합은 적어도 물질적인 부의 측면에서 볼 때, 인류 역사상 가장 생산성 있는 경제라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생태학적, 사회적으로 미친 자본주의의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성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눈부신 생산성 향상에도, 전 세계 사람들은 자본주의 경제가 생태학적으로, 사회적으로, 심지어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지속 가능할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다. 산업화가 환경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은 1960년대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켰고, 이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범세계적인 운동으로 확산 됐다. 1972년, 로마 클럽의 *성장에 한계* (Limits to Growth) 보고서는 장기적인 생태 지속성이라는 좀 더 포괄적인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 *브룬트란트 보고서*(Bruntland Report)라 불리는 1987년 유엔환경개발회의 보고서는 사회, 윤리, 생태적 측면에서의 지속적인 발전에 대해 좀 더 정확한 정의를 내렸다. 지속적인 발전이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 을 의미한다.

지난 30년간의 환경 규제를 통해 달성한 진전에도 생태 지속성을 위협하는 존재는 여전하다. 토양, 대기, 수질 오염, 산성비, 방사능 방출, 생물 다양성 감소, 오존층 파괴, 지구 온난화 외에도 생태학 남용 사례는 느는 추세다. 비록 잘 알려지지 않는 않지만, 사회 지속성 위협 또한 이에 못지 않게 심각하다. 사회적 고립, 불신, 부정, 불평등, 불황, 소송, 대립, 테

러, 전쟁 등은 분명 자본주의 국가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지만, 산업 자본주의가 가져오는 필연적인 사회적 결과물이다.

경제 발전으로 야기된 생태 파괴와 사회의 부패 사례가 늘고 있음에도, 소위 세계의 선진 경제 국가의 물질적 번영을 향한 지칠 줄 모르는 욕구는 여전하다. 생태 파괴와 인구 과잉으로 인한 지속적인 가난에도, 개발 도상국의 인구는 가히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사회 지도자, 과학자, 사회 운동가들은 서로 다른 종류의 수치를 인용하며 단기적인 측면에서의 경제 성장으로 인해 잃게 되는 장기적인 생태, 사회 비용에 대해 논의를 벌인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가 글로벌 사회의 미래에 타당한지 혹은 중요한지에 관한 진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과학자들과 학자들 또한 자본주의가 공공 정책이나 다른 종류의 사회 간섭을 통해 지속할 수 있을지에 관해 의견을 달리한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자본주의 형태는 효과적인 도덕적, 사회적 제약의 부족으로 지속할 수 없다.

자본주의의 지속성 부재는 가장 근본적인 물리학 법칙인 열역학법칙의 직접적인 결과다. 지구상의 생명체를 지속시키는데 있어 필요한 모든 것이 에너지에 의존하기 때문에 지속성이란 궁극적으로 에너지 이용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 식, 주, 자동차 등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물건은 이를 만들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용하기 위해서도 에너지가 있어야 한다. 노동이나 사고(思考) 등의 인간 활동은 인간의 에너지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에너지는 사람이 먹고, 입고, 사용하는 모든 것을 구성하는 에너지로부터 나온다. 물리학자들은 이와 같은 유용한 모든 활동을 한데 묶어 "일"이라 부른다. 그러므로 모든 일은 에너지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가 일을 위해 일단 한번 사용되면 에너지의 유용성이 어느 정도 상실된다는 것이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는 언제나 더욱 집중된 형태에서 덜 집중된 형태로 변한다. 사실 이와 같은 자연적 현상 때문에 에너지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음식, 휘발유, 플라스틱, 철 등의 모든 물질은 매우 집중된 형태의 에너지이다. 음식을 먹을 때와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물질은 유용한 에너지로 전환된다. 전력 생산을 위해 열을 이용하고, 빛을 생산하기 위해 전기를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에너지는 유용성을 창출해내기 위해 형태를 바꾼다. 그러나 에너지가 일을

함에서 항상 더욱 집중된 상태에서 덜 집중된 형태로 변한다 하더라도 에너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에너지 총량은 물질에 그대로 남아있고 형태, 집중도, 조직 정도와 관계없이 에너지는 언제나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관계식 $E=MC^2$ (에너지는 물질의 질량과 광속의 제곱을 곱한 값과 같다)에서 볼 수 있는 에너지는 보존된다는 열역학 제 1법칙이다.

언뜻 보면 에너지는 무한정으로 재활용, 재사용이 가능한 것 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물론 지속성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 에너지가 일을 위해 사용되면, 재사용을 위해서 이 에너지는 재집중, 재조직, 회복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지속성에 관한 문제는 에너지가 재집중, 재조직, 회복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또한, 이와 같은 과정을 위해 사용되는 에너지는 더는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유용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일할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이것이 열역학 제2법칙인 엔트로피 법칙이다. 이는 모든 폐쇄계의 질량과 에너지가 감소하는 현상, 구성요소의 무위적 균일 상태, 구조, 패턴, 조직, 혹은 분화의 부재로 설명 할 수 있다. 예를들어, 활활 타고 있는 나무가 열과 복사열을 방출할 때, 나무가 저장하고 있던 에너지는 고갈되고, 그 나무는 결국 재로 변하게 된다. 또한, 나무가 엔트로피로 변하면서 나무의 구조, 패턴, 조직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달과 화성의 불모지 또한 엔트로피의 한 예라 볼 수있다.

유용한 에너지가 엔트로피에 의해 손실되는 것은 필연적이므로 지속성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만약 기술의 진보로 "쓸모없는" 에너지의 유용성이 회복될 수 있다면 쓰레기도 일한 후에 발생한 에너지 부산물으로써 재사용이 가능하다. 오염은 단순히 불필요한 에너지가 아니라, 다른 에너지 원천의 유용성을 감소시키거나 이를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유용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불필요한 것이나 오염을 완전히 없앨 수 있다 하더라도, 엔트로피로 변하는 현상은 계속 될 것이다. 지구상의 생명체는 매일 유입되는 태양 에너지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 지속성이란 결국 엔트로피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서 태양 에너지에 의존하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에너지 창출의 매우 효과적인 체제지만 엔트로피 때문에 잃게 되는 에너지의 유용성을 상쇄하기 위해 유일무이한 재생에너지라 할 수 있는 태양 에너지의 활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자본주의 최대 관심사인 개별적 이익 추구는 경제적인 혜택의 원인이 되지만 동시에 폐쇄계가 에너지의 소실, 고갈로 이어지고 엔트로피로 변하는 자연적 현상을 가속화시키기도 한다.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개개인은 미래 세대를 위한 재생 에너지 투자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자본주의자들이 쓰레기와 오염을 줄이고 에너지 자원을 재활용, 재사용하려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윤으로 남을 때이다. 즉, 그렇게 하는 것이 개인의 이익이 될 때이다. 자본주의자들이 재생 에너지를 이용할 때는 현재의 소비를 위해 물건을 팔기 위함이지, 엔트로피 상쇄를 위해 에너지를 다시 저장하기 위함이 아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자본주의는 매우 효율적이지만 동시에 필연적으로 "물리적 엔트로피" 로 변하는 것이며, 그렇기에 지속성이 불가능한 것이다.

엔트로피 법칙은 물리적 에너지 외에 사회 에너지에도 적용된다. 물리적 에너지로부터 나온 모든 인간 에너지, 예를 들면, 노동, 경영, 혁신, 창조는 사회관계의 산물이다. 인간은 친히 보살펴주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태어날 수도, 성숙해질 수도, "유용해질 수도" 없다. 복잡한 사회의 생산력 있는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하고 문명화, 사회화되어야 한다. 정계, 재계, 국가 등의 모든 기관들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일하는 생산성있는 사람들의 능력에 의존하며 그 능력은 다시 인간 사회의 사회성과 문화성에 좌우된다. 인적 자원은 가정, 친구, 지역사회, 사회에서의 건강한 인간관계의 산물이다.

자본주의는 개인 관계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사회 에너지를 소실, 소멸시키며 혼란에 빠뜨린다. 사회 자본은 인간이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능력과 의지 안에서 구체화되는 가치이다. 그러나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서로 "공평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는 "비인간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시장 경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인간은 협동보다는 경쟁을 해야 한다.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일, 즉 생산력 증진을 위해 사용하면 할수록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인간관계를 위해 써야할 시간과 에너지는 줄어들게 되고 사회 자본은 고갈되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믿는 사람에게서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

라 순전히 가격 비교만으로 구입한다면 지역사회에서의 인간관계는 무관심으로 손해를 입게 되고 사회 자본은 사라지게 된다. 자본주의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평가절하하며 서로 소원해지게 하며 그래서 결국은 사회 에너지의 소실, 소멸, 혼란으로 이어지게 한다.

자본주의 경제는 일하는 사람들을 "이용" 함으로써 효율성을 얻는다. 동시에 사회에서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 자본 복원을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자본주의자들에게는 미래 세대를 위해 가정, 지역사회, 사회에 투자해야 할 경제적 동기가 없다. 또한,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경제 생산성 복원을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인력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이윤이 많이 남는다. 자본주의자들이 사회적 가치에 공을 돌릴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윤과 성장을 저해하는 사회, 정치적 제약을 낮출 것으로 기대될 때이다. 자본주의들은 장기적인 사회 복지에 투자함으로써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사회 재건 프로그램을 위한 기금 조성을 위해 기업에 세금을 물리려는 정부의 모든 시도를 거부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매우 효율적이지만, 동시에 "사회적 엔트로피"로 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지속성이 불가능하다.

경제는 사람들이 복잡한 사회에서 다른 사람과의 그리고 자연환경과의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에는 서로 물물교환을 하거나 자신이 삶에 필요한 필수품이나 의식주를 스스로 생산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다. 경제는 사실 아무것도 생산해내지 못한다. 단지 물리적 에너지와 사회 에너지를 "비인간적인" 시장에서 거래와 교환이 가능한 형태로 변형시킬 뿐이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생산해내기 위해 사용 될 수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경제 자본은 모두 물리적 또는 인간 에너지, 즉 자연, 사회 자본에서 나온다. 자본주의자들은 자연 자본이나 사회 자본을 복원하거나 재생해야 할 어떠한 경제적 동기가 없다. 자연, 사회 자본을 얻어 모두 이용하고 나면 남아있는 경제 자본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자본 없는 경제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생산해 낼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며 경제 엔트로피 상태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더는 지속성은 불가능해진다.

요컨대, 자본주의는 단기적인 개별적 이익에 집중하며 미래 세대를 위해 현재의 생산성을 희생하려 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경제 체제에 비해 경제적

으로 이점은 있다. 동시에 자본주의의 생산성은 지속성의 부재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는 간단히 말해 지속적이지 않다. 이는 사건이 아니라 가장 근본이 되는 과학 법칙의 논리적인 결과이다. 궁극적으로 지속성이란 재생 가능한 태양 에너지를 활용하려는 사회차원에서의 합의를 요한다. 이는 현 세대의 필요 충족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충분한 에너지 원천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결국은 엔트로피를 상쇄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속성이란 새롭고도 과거와는 다른 경제 패러다임을 요한다.

분명히 많은 과학자가 이러한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 엔트로피 법칙에도 인간은 그들이 다 써버린 에너지 원천을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를 언제나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다. 순전히 미래 세대로 갈수록 증가하는 혜택과 비용을 경제학이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음에도 많은 경제학자는 자유 시장이 어떻게든 희박한 자원을 분배해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것이라 믿는다. 이러한 믿음은 단기적인 개별적 이익의 끊임 없는 추구에 손쉬운 정당성을 부여하지만 이러한 믿음은 사실 기초가 없는 믿음이다.

다른 경제학자들은 지속성을 불가능하게 하는 위험요소가 시장에 내제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와 같은 "생태" 경제학자들은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아우르는 생태적, 사회적 비용과 이득을 완전히 반영하는 시장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치 전략과 공공 정책을 제안해 왔다. 이들은 경제 가치를 생태, 사회적 외부성에 할당하여 시장이 시간이 지나도 대안 용도에 자연, 사회자원을 배분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생태적, 사회적 외부성을 내부화하는 것은 결국 생태, 사회자본의 잘못된 배분으로 이어진다.

생태, 사회 자원은 이들 자원에서 파생된 경제적 가치 외에도 직접적이고도 본질적인 가치를 제공한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개인 관계로부터 또는 자연환경과의 관계로부터 직접적인 혜택을 얻는다. 경제적 가치로 이어지는 사회, 생태적인 관계는 간접적이지만 다른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써 본래 중요하다. 직접적인 생태, 사회적 가치는 이들의 비경제적인 특징으로 두드러진다. 지속적인 생태, 사회적인 혜택은 경제적인 혜택에서 얻어진 것이 아닌, 직접적인 혜택이다. 만약 이러한 직접적인 혜택이 무시되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회의 장기적인 복지와 자연환경의 온전성을 유지하는 가치는 엄청나게 평가절하 될 것이다.

경제, 사회, 윤리적 가치는 다른 가치 체계에서 나온다. 경제적 가치는 개인의 내재 되어있는 가치에 대한 믿음에서 기인한다. "기업 믿음 체계" 하에서 한 사람의 가치는 사회에 경제적 가치를 이바지하는 능력에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한 사람의 고결한 사회적 책임은 개인의 생산성과 부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가치는 이득과 비용이 시장에 내부적인지 외부적인지에 상관없이 금전적인 가치로 정확히 평가 되어질 수 있다. 외부 비용과 이득이 존재한다는 것은 자연, 사회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시장이 완전히 반영하지 못함을 나타낸다. 이런 경우에, 외부 경제적 가치를 내부화하는 것은 모든 관련 비용과 이득을 철저히 계산하는 것이다. 기업 믿음 체계하에서 정부의 중요한 의무는 개개인에게 경제적으로 생산성 있는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완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은 사유 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사회적 가치는 다른 믿음 체계에 기인한다. 서로 다른 문화 속에 존재하는 믿음은 모두 똑같이 정당성을 부여받지만, "민주적인 믿음 체계"는 경제, 사회적 가치 사이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차이를 잘 설명해준다. 민주적인 믿음 체계하에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에 관계없이 평등한 권리와 가치를 부여받는다. 그리고 한 사람의 고귀한 사회적 책무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과 정의를 보장하도록 기여하는 것이다. 이런 민주적인 믿음 체계하에서 사람들은 동등한 권리와 가치를 가지고 있기에 사회적 비용과 혜택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동등한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

분명히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능력, 에너지, 창의성, 부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경제적 영향력을 가질 순 없다. 따라서 사회에 이바지하는 능력 또한 다르다. 시장은 설사 경제가 효율적이라 하더라도 서로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보상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경제, 사회적 가치는 다르게 측정되어야 하며 개별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그 결과 독특하고 개별적인 경제적, 사회적 의사 결정 방식이 나오게 된 것이다. 민주적인 믿음 체계하에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평등과 정의를 보장하는 것인데, 이는 모든 사람이 평등권이 있는 모든 것에 평등한 접근성을 보장받는 것이다. 여기에는 사유 재산권과 경제적인 기회가 포함되지만 분명히 모든 민주적 권리를 다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비민주적인 사회에서는 공공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력을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도 정치적 권력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능력과는 다르게 분배된다. 각각 다른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과 어떻게 어울릴지를 결정한다. 이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그들이 바라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되는 사회적 관계를 받아들인다. 순전히 개인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인 문화를 제외한 모든 문화 체계에서 사회적 가치는 경제적 가치와는 다르게 평가되어야 하고 개별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윤리적 가치는 또 다른 평가 방법을 요한다. 모든 정부의 권위는 그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 또는 적어도 승인을 통해 나온다. 거의 모든 형태의 정부 체제하에서, 한 사회의 사회, 윤리적 가치는 헌법 또는 헌장에 명시되어 있다. 이런 헌법과 헌장은 정부의 기본 구조와 정부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 필요한 원리를 정의하고 있다. 헌법과 헌장이 만들어지고 개정되는 과정은 문화 내에서의 합의의 과정을 반영한다.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꼭 만장일치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에 대해 의견을 달리한 사람은 반드시 합의 이행에 대한 합리성을 확신해야만 한다.

결과적으로 윤리적, 도덕적 가치는 돈이나 표(票)로 평가 될 수 없다. 분명히 윤리적으로 옳지 못한 것은 누군가 이를 윤리적으로 옳게 만들기 위해 많은 돈을 쓸 용의가 있다 하더라도 되돌리기가 어렵다. 또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른 것 또한 아무리 많은 사람이 이에 표를 던진다고 하더라도 윤리적으로 옳은 것이 될 수는 없다. 한 사회의 기본적인 윤리, 도덕적 가치를 위반하는 것은 사회에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다시 보상받을 수도, 용서 받을수도 없는 것으로 그렇기에 묵인될 수도 없다. 그러므로 헌법에 위배되는 법은 경제적 희생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많은 정치인이 지지했다 하더라도 무효로 선언되어야 한다. 입헌원리에 위배되는 행위는 법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으며 경제적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런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윤리적 가치는 경제적, 정치적 과정을 통한 평가가 불가능하다.

요약하자면,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은 어느 정도의 부분적인 경제적 가치는 있으며 이는 현재 생태 경제학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을 통해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공평하고 윤리적인 사회의 총

가치는 경제에 미치는 부분적인 기여도보다 훨씬 크므로 사회, 윤리적 가치를 통화 가치로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 따라서 외부 비용과 혜택을 내부화하는 것은 사회를 호도하여 거대한 사회, 생태학적인 직접적 가치를 소외시키고 무시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설사 윤리, 사회적 가치가 자유기업경제 안으로 편입될 수 있다 하더라도 사회, 윤리적 가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돈을 지급할 능력과 의지에 따라 시장에 의해 분배될 것이다. 그러면 그 사회의 사회, 생태 자본은 잘못 분배 될 것이고 결국 시장 배분을 통해 고갈될 것이다.

지속 가능한 경제는 근본적으로 다른 패러다임, 특히 살아있는 체계의 패러다임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본래 살아있는 것은 자기 창조, 재생산, 번식, 재생한다. 살아있는 식물은 살아있는 다른 유기체를 보호하고 엔트로피에 의해 필연적으로 사라지는 에너지를 상쇄하기 위해 태양 에너지를 받아 체계화하여 저장하는 타고난 능력을 갖추고 있다. 살아있는 생물은 또한 그들의 종을 번식하는 성향을 타고났다. 인간의 경우 사실 경제적인 동기가 거의 없는데도 엄청난 양의 시간과 에너지를 보육하는데 쓴다. 분명히 한 개인의 삶은 지속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결국에는 죽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 사회와 사회에 살고 있는 개개인들은 그들 삶의 엄청난 부분을 다음 세대의 출산과 양육에 할애 하면서도 생산성을 유지하는 능력과 타고난 성향을 가지고 있다.

살아있는 모든 체계 또는 지역사회의 생산성과 재생 능력은 관계, 특히 비분리 통일체 내의 다양한 구성 요소 간 관계에 달려있다. 살아있는 체계는 개별적인 요소로 분리될 수 없으며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과정은 본질, 즉 생명의 파괴 없이는 멈출 수가 없다. 살아있는 체계 안에 존재하는 요소 사이의 공간적이고 일시적인 관계와 요소의 다양성 때문에 생명체 전체는 개별적인 부분이 서로 모여 이루어진 모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살아있는 체계 전체는 체계안의 부분들 간 관계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상호 의존적이거나 상호 이익이 될 때는 언제든지, 부분들이 모여 이루어진 모임 이상의 존재이다.

살아있는 건강한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는 상호 이익이 되기 때문에 건전한 관계는 본래 “선택적” 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살아있는 모든 유기체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살아있는 세포는 선택적이거

나 반투성의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 반투성의 경계가 어떤 것은 안으로 들어오게 또 다른 것은 못 들어오게 하고, 또 어떤 것은 못 들어오게 다른 것은 들어오게 한다. 이와 같이 살아있는 유기체는 다른 종류의 공기, 물, 음식, 찌꺼기를 선택적으로 유기체의 몸안으로 들어오고 밖으로 나가게도 하는 경계, 피부, 수피, 비늘 등으로 정의된다. 만약 이런 경계가 완전한 침투성이나 불침투성이라면, 즉 모든 것을 몸 안으로 들여보내거나 아니면 아예 아무것도 못 나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아무 것도 못 들어 오게 하고 못 나가게 한다든지 하면 이 유기체는 살아갈 수가 없고 따라서 생산이나 번식을 할 수가 없다. 살아있는 유기체는 상호 이익적인 선택적인 관계에 의존한다.

이와 같은 원리는 생태계, 가정, 지역사회, 경제, 문화 등 살아있는 모든 체계에도 해당된다. 살아있는 모든 체계는 비분리 통일체 내의 다양한 요소들 간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좌우된다. 건강한 자연 생태계 요소들 사이의 관계는 본래 상호 의존적이다. 그러나 인간 사이의 건전한 관계나 인간과 자연 사이의 건전한 관계는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선택의 문제이다. 따라서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선택적이어야만 한다. 한 가정과 지역사회 일원들 사이의 관계는 다른 가정과 지역사회 사람들 사이의 관계와 달라야 한다. 그래야, 그들의 개성과 다양성을 유지하여 각각의 개인이 속해있는 경제와 문화 전체에 이바지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다른 경제, 문화 사이에서의 관계도 인간 사회 전체가 건강하고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택적이며 상호 호혜적이어야 한다.

한 때는 살아 있었던 모든 죽은 체계가 엔트로피로 변하는 자연적인 성향은 경계의 파멸과 파괴로 향하는 성향에 반영된다. 엔트로피는 경계의 부재, 즉 구성요소의 비활성 균일성 또는 모양, 패턴, 계층구조 또는 차별화의 부재로 특징 지어진다. 경계는 에너지가 물질에서 방출할 때 파괴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형태가 변한다. 나무가 연소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할 때, 한 때 그 나무의 구조를 분명히 했던 경계는 파괴되어 재로 변한다. 인간의 신체가 음식물을 에너지로 전환할 때, 음식물에 형태와 구조를 형성하던 경계는 소화라는 과정을 통해 파괴된다.

경계와 엔트로피의 개념은 또한 문화, 정치, 경제 체계와 관련이 있다. 문화, 정치 경계의 와해는 전문화, 표준화, 지배력 강화에 대한 문화, 정치

적 제약을 무너뜨려 경제 산업화를 촉진하며 생산성과 경제 효율성을 극대화시킨다. 문화 사이의 경계 와해는 사회, 정치 과정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천연자원의 경제적인 사용과 인력의 경제적 이용을 방해하는 문화적 규제를 제거함으로써 에너지를 방출시킨다. 마찬가지로, 정치 경계의 와해는 한 나라의 투자자들이 다른 나라의 천연자원과 인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게 하는 법, 규제, 다른 정치적 제약에 제한되었던 에너지를 방출시킨다. 자본주의는 모든 문화, 정치 경계를 허물어 드릴수 있는 강력한 경제적 동기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은 생태, 사회, 경제적 현실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지속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살아있는 체계라 볼 수 있는 농업은 경제적 엔트로피와 지속성 있는 경제 발전을 설명하는 유용한 은유를 제공한다. 생산성과 경제 효율성의 엄청난 이득은 농업의 경계를 없애 산업 생산 방식을 활성화 시켰기에 가능했다. 자본주의 국가의 농부들은 좀 더 전문화, 기계화, 대형화된 생산 체계를 도모하기 위해 울타리, 즉 밭의 경계를 없앴다. 한 때 가족 농장으로 특징을 이뤘던 다양한 중소 곡물, 가축 기업들은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점점 사라졌다. 시골 지역의 풍경은 모양, 패턴, 계층구조, 차별화가 없는 비활성 균일성 상태로 변하고 있다.

경제적 지배는 한 때 지역 사회 내에서 다른 농지의 경계를 정했던 소유권과 동일성의 경계를 무너뜨림으로써 소수의 농부들 사이에서 강화되었다. 농지가 더 커지면서 농부들은 지역 사회의 경제 경계를 무시하게 되었고 최대의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을 때 마다 그들의 상품을 팔고 생산에 있어 필요한 것을 구입했다. 농업 공동체는 그들의 경제, 사회적 동일성을 잃어버렸다. 효과적인 경제 경계가 없는 지역사회는 선택적인 관계를 영위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외부에서 자기 자신들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도를 막지 못하게 되었다.

오늘날 국가 경제 경계는 단일 세계 경제를 만들기 위해 무너지고 있다. 국가들은 자유 무역이라는 명목하에 경제 효율성 달성을 위해 땅의 스튜어드쉽, 식량 정의, 식량 안보에 관한 각 나라의 독특한 사회, 문화적 가치를 포기하도록 압력받고 있다. 단일 세계 경제 시장에서는 어떠한 나라도 점차 세계 식량 체계를 지배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착취로부터 자국 농지, 농민,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없을 것이다. 식량은 자국의 땅과 농부를 다

국적 기업의 착취로부터 보호할 능력이 가장 적은 나라에서 생산될 것이고 가장 높은 비용을 지급하고 구입할 용의와 능력이 있는 나라에 팔리게 될 것이다. 단일 세계 경제 시장이 등장하게 되면 어떤 나라도 진정한 의미에서 식량 안보를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는 그들 경제에서 농업 분야를 잃게 될 것이고 가난한 나라는 부유한 국가에 식량을 제공하기 위해 그들의 농지와 농부들이 이용당하는 현실을 지켜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회, 생태 자원이 고갈되면 부유한 나라건, 가난한 나라건 할 것 없이 더 이상의 식량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농업의 산업화가 신고전주의 자본주의의 위험성에 대한 은유를 제공하듯이, 지속적인 농업은 지속적인 자본주의의 은유를 제공한다. 지속적인 개발의 한 형태인 지속적인 농업은 미래의 필요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필요를 충족 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농업은 생산성과 가치를 사회에 영원히 유지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지속적인 농업 체계는 생태학적으로 건전하고 사회적으로 책임이 따라야 하며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농지의 생산성을 약화시키고 자연환경에 해가 되는 농지는 생산성을 유지할 수 없다. 소비자로서 뿐만 아니라 생산자, 시민으로서 사회의 필요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농지는 그 사회에 의해 유지가 불가능하다. 또한, 경제적으로 현실성이 부족한 농지는 단기적인 측면에서 생태학적으로, 사회적으로 건전하다 할지라도 지속적이지 않다.

지속적 농업은 유기 농업의 역사적인 철학 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유기 농업의 창시자인 앨버트 하워드경(Sir Albert Howard)의 저서 *농업 성약 (An Agricultural Testament)*은 “비옥한 토양을 정비하는 것이 영원한 농업 체계를 위한 첫째 조건이다” 라는 주장으로 글이 시작된다. 하워드 경은 동양의 영원한 농업을 로마의 멸망을 가져왔던 농업 쇠퇴와 비교 했다. 그는 “서양의 농부들은 로마 제국의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 라고 결론을 내렸다. 유기 농업의 또 다른 저명한 학자인 J.I. 로델(J. I. Rodale)은 세대 간의 평등이라는 측면에서 유기 농업을 정의했다. J.I. 로델은 “유기재배를 하는 농부는 자기 자신에게 신성한 믿음이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애국의 의무로써 농부는 비옥한 땅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 땅은 더럽혀지지 않고 풍부한 상태로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줄 귀중한 유산이다” 라고 기술했다.

생명동태농법(비오다이내믹 농법)의 창시자인 루돌프 슈타이너(Rudolph Steiner)는 유기 농법을 살아있는 체계, 즉 유기체로 정의했다. 유기체의 건강과 생산성은 유기체의 생태, 사회, 경제, 영적인 요소 사이의 건전한 관계에 달려있다. 루돌프 슈타이너는 “농지는 본래 유기체가 될 수 있는 만큼 건강하다. 이는 보다 큰 생태, 사회, 경제, 영적인 실체와 살아있는 교감을 하며 서 있는 농부가 이끄는 개별적이며 다양한 생태계를 말한다.” 라고 썼다. 슈타이너에게 유기 농업은 농지, 농부, 음식, 먹는 사람간의 사회적, 영적인 관계였다. 진정한 유기 농지에서의 관계는 상호 이익적이며 상호 의존적이다.

“지속성 있는 농부” 는 태양 에너지를 얻고 저장하기 위해, 토양의 유기 물질과 자연적인 생산성을 복원하기 위해 녹색 식물에 의존한다. 이들은 토양의 비옥도를 유지하기 위해 윤작, 지피(地被)작물, 간작, 윤환방목, 통합 작물·가축 체계를 이용한다. 유지할 수 있는 농부는 사용하고 있는 농지를 있는 그대로 아님 더 좋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농지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에 윤리적·도덕적 책임감을 표현한다. 많은 수의 산업 유기 생산자들이 수확량을 늘리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의 특수화, 표준화된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유지할 수 있는 유기 농부들은 영원한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영원한 농업을 창출해 내는 데 있어 여전히 다양성, 상호의존성, 전체론에 전념하고 있다.

지속성 있는 농부는 대지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한 직접적인 가치를 실현한다. 이들은 생산성 유지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대지의 관리인으로서의 영광된 역할을 존중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일한다. 농부와 소비자는 농산물 직판장에서 연대감을 새롭게 다지고, 지역사회는 농업 협회(CSAs), 지역체 정원, 그 밖의 직매점을 후원한다. 유지할 수 있는 농부는 수확한 상품 판매와 구입에서 그들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를 최우선으로 삼고, 지역 소비자들은 지역 사회와 사회를 소중히 여기며 지역 농민들을 역시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지속 가능한 농업은 이들의 직업일 뿐만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들의 삶에 목적과 의미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도 이바지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농업에의 새로운 접근 방식은 유기농, 비오다이내믹 농법, 전체적 농업, 바이오 인텐시브 농업, 생물학적인 농법, 퍼마컬처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실천하는 농부와 소비자는 회복과 재생을 통해 영속성 있는 새로운 식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소규모의 식품 가공 업체와 소매업체는 대형 소매 업체와 경쟁하기 위해 지역 농부들과 지역 사회 구성원들과 연대를 형성하고 있다. 대형 소매 업체는 현재 국내외 식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 정책과 국가 우선과제가 지원적 방향으로 바뀌게 되면, 지속성있는 지역사회 기반의 식품 체계가 기업 주도형 산업 식품 체계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농부와 소비자가 식품안전, 영양, 환경의 질, 사회 정의, 세계화, 그리고 그 밖의 지속성 문제를 반영하는 사회, 정치 운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와 같은 지속가능한 식품 체계를 위한 움직임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경제 세계화가 실제로는 지역 경제, 사회, 문화의 지속성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무역이라는 이름 하에 모든 경제 경계를 허물어 버리면 우리의 천연자원, 즉 농지 뿐 아니라 농부를 포함한 사람들까지 거대 글로벌 기업의 착취에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직감적으로 안다. 이 거대 글로벌 기업에 대해 우리들은 지배권이 없다. 지속성 있는 농부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과 나라의 식량 수급뿐만 아니라 인류의 장기적인 지속성에 대해 걱정하는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힘을 합치고 있다.

지속성 있는 농업은 지속성있는 경제와 지속성있는 인간 사회에 대한 은유를 제공한다. 지속성 있는 경제는 궁극적으로 엔트로피에 잃게 되는 에너지를 상쇄하기 위해 태양 에너지에 의존해야 한다. 모든 천연자원은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존, 재사용, 재활용돼야 한다. 오염은 복원에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 최소화되어야 한다. 에너지 사용은 눈에 띄게 줄어야 한다. 결국, 지속성을 위해서는 엔트로피에 잃게 되는 에너지를 상쇄하기 위해 풍력, 수력, 광전지, 태양 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 태양 에너지는 지금까지 알려진 에너지원 중에서 가장 “영속성” 있는 에너지원이다. 궁극적으로 모든 종류의 경제 발전은 유기 농법처럼 엔트로피를 상쇄하고 장기적인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태양 에너지를 얻고 저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인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지구와의 관계를 통해 얻는 본질적인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다면 자연, 사회 자원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질이 더욱 큰 생태, 사회, 경제, 정신적인 실체와의 교감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인지해야만 한다. 우리들은 위에서 언급한 실체의 일부일 뿐이다. 지속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삶의 사회, 윤리적인 측면이 경제적 측면만큼이나 주요한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 지속성 있는 농업처럼 지속성있는 자본주의도 개인, 사회, 윤리적 요소 사이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고전 자본주의는 강한 사회, 윤리적 기반이라는 토대 위에 만들어졌다. 아담 스미스, 데이비드 리카도, 토마스 맬서스와 같은 고전 경제학자들은 사회, 윤리적 원리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아담 스미스는 1776년 *국부론 (Wealth of Nations)*에서 “하층 계급의 환경 개선이 사회의 불편으로 간주하여서는 안된다... 더 큰 부분의 환경 개선이 전체의 불편으로 여겨질 수 없다.” 라고 했다. 아담 스미스는 또한 자연 자원을 뜻하는 “토지”에 대해 “광대한 모든 국가의 가장 위대하고 중요하며 영속적인 국부에 해당한다” 라고 기술했다. 고전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 경제가 사람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 하기 위해서는 도덕적이며 공정한 사회의 사회, 윤리적 경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이해했다.

그러나 20세기를 전후하여 나타난 신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은 진정한 과학자가 되기를 원했었다. 이들은 마침내 비인간적인 과학적 객관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고전주의 경제학의 사회, 윤리적 토대를 버렸다. 시간이 갈수록 시장 경제는 몸집이 큰 산업 기관의 거시경제 추구로 경쟁력있는 자본주의를 위해 꼭 필요한 조건들로부터 멀어져 갔다. 마침내, 개인이 아닌 공기업이 자본주의 경제사회에서 결정권을 독점하게 되었다. 자유시장이 개인의 사리사욕을 사회의 선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조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경쟁력 있는 자본주의는 많은 수의 소비자와 판매자, 사장 참여와 거부의 자유, 정확한 정보, 소비자 주권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조건은 작은 규모로 직접 얼굴을 맞대고 하는 거래가 성황하고, 따라서 광고를 통한 강매, 사기, 설득 판매가 불가능했던 아담 스미스 시절에는 존재했다. 시장 참여 여부가 투자 요건과 특허권으로 제약받고, 소비자들을 호도하고 설득하기 위해 수입액 달러의 돈이 마케팅에 사용되고 있는 오늘날의 자본주의 경제는 거대 다국적 기업이 지배하고 있다. 국제 무역은 주권이 있는 개인

들에게 더 이상 자유 무역이 아니다. 이들은 무역을 하지 않을 자유가 없다. 오늘날의 자본주의 경제는 대신에 빈국과 부국 사이에 이루어지는 강압적인 무역이다. 이 경우에도 빈국은 강압에 의해 어쩔수 없이 무역을 하게 된다.

기업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 자본주의 경제는 암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더는 사회, 도덕적 양심이 존재하지 않는다. 성장률을 제한하며, 포화상태에 이른 경제를 통제할 효과적인 사회, 윤리적 내부 제재조치의 부재속에서 자본주의 경제는 무제한 성장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경제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암처럼, 자본주의 경제는 성장과 착취를 막는 모든 외부 요인을 제거하려고 한다. 자본주의의 무제한 성장은 이제 세계 생태계와 글로벌 사회의 지속성을 위협하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지속적인 경제 체제는 인간 사회의 사회, 윤리적 가치를 자본주의 경제에 재융합하여 사회적 지배성을 회복하고 경제 발전을 통해 현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의 혜택을 보장해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신정주의 국가 할 거 없이 대부분의 나라는 이미 자본주의 경제가 지속하도록 하기 위한 문화, 정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들 국가는 사회를 제한하고 다스리며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는 헌법이나 헌장, 정부 또는 법 체계를 가지고 있다. 정부를 통해 사회는 개인과 사적 경제를 제한하고, 다스릴 수 있으며 또한 목적을 부여할 수도 있다. 대다수의 국가는 또한 다른 나라나 다국적 기업과 같은 외부 경제 주체의 착취로부터 천연자원을 보호할 충분한 주권을 가지고 있다.

사실, 모든 나라는 자국의 천연자원과 자국 국민을 경제적 착취로부터 보호할 권리뿐만 아니라 책임도 가지고 있다. 고전 경제학 관점에서의 자유무역으로 이루어지는 혜택은 어떤 당사자도 무역에 대해 압력과 강압을 받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무역 여부를 택할 수 있는 타당하고도 비강압적인 무역에 적용된다. 국가는 자연, 생물학적, 사회자원의 질을 떨어뜨리고 고갈시키는 교역 합의문을 거부해야만 한다. 지속적인 발전은 세계 경제 정의 실현이라는 지속성 있는 수준을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무역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자원 착취로 이어지는 무역은 상호 호혜적이지 못하므로 지속적이지 않다. 지속적인 경제 발전은 산업 발전처럼 빠르거나 쉽지는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가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생태, 사회자본이 보호되어야만 한다. 지속적인 사회, 국가, 문화

의 경제 경계는 살아있는 모든 생명계와 마찬가지로 선택적, 즉 반투성이어야 한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오늘날 경제 착취로부터 문화, 생태, 사회 온전성을 보호함에 있어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와 노력이 부족하다. 사실, 오늘날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의 공공 부문은 미래 세대의 권리나 사회의 공동 이익을 보장하기보다는 막강한 기업 또는 개별경제 주체에 주는 정치적 목적의 보조금에 사로잡혀 있다.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들은 상호 이익의 무역이나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추구하기보다는 경제 세계화를 통한 자원 착취에 열중하고 있다.

한 국가의 지속성을 위한 노력은 그 국가 국민의 진심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일단 국민의 노력이 뿌리를 내리면 국가 헌장이나 헌법 조항으로 포함될 것이다. 예를 들어, 모든 국민들이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 권리, 경제 착취에서 보호받을 권리, 그리고 아마 가장 중요한 권리라 할 수 있는 미래 세대도 현 세대의 권리와 똑같은 권리를 보장받을 자격이 있다는 내용의 헌법 조항이 도입될 것이다. 이러한 조항은 합법적인 모든 정치, 경제 활동이란 현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생태, 사회 자본의 보호와 재생을 고려하는 것임을 명시하는 것이다. 즉, 정부와 경제가 살아있는 지구처럼 기능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공식적인 헌법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한 나라의 국민 사이에 지속성이라는 도덕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결국 정치, 경제 체제를 재편성할 수 있다.

한 예로 토양의 자연 생산성을 저하하는 농업 사용을 금하는 법 또는 적어도 토양 침식률이 토양 재생률을 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제정될 수도 있다. 세금을 부과하여 재생 불능 자원의 가격을 적어도 재생 가능한 태양 대체 에너지 가격보다 높여 세대 간 에너지 비용을 균일화할 수 있다.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 오염은 경제적 비용에 상관없이 금지 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환경오염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소비자를 호도하는 상업 광고 또한 금지되어 순진하고 정보에 어두운 사람들을 경제 착취로부터 보호하게 될지도 모른다. 정부는 시장이 개인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경제에 진정한 경쟁력, 즉 고전주의 경제 경쟁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국제 관계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국제기관이 각 나라의 자연 자원과 인력을 외부의 착취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국가간 선택적 교역을 도모하는 교역 합의문을 도출해내는 데 중개인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 세대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의 인권에 관한 진정한 국제적 합의는 유엔의 최대 과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국제 재판소가 설립되어 국제적 차원에서 인권 보호를 보장하여 전 세대를 아울러 모든 국가의 자원과 인력을 보호할 수도 있다. 궁극적으로 지속성이란 글로벌 과제가 되어야 한다.

지속적인 자본주의는 지속성을 이루기 위한 다른 접근 방식과 비슷해 보일 수도 있지만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첫째, 지속적인 자본주의는 미래 세대를 위해 기회를 보존해야 할 사회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윤리적, 도덕적 노력에 기인한다는 점이다. 지속적인 자본주의는 사회 변화를 “강요” 하기 위해 법이나 규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변화를 “반영” 하기 위해 이용한다. 지속적인 자본주의는 사람 사이의, 사람과 자연 환경 간 관계의 정의라는 철학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환경 보호주의와는 다르다. 그러나 이는 또한 사람의 권리를 통해 생태상의 고결함을 다룬다는 점에서 전면적 생태 보호 운동과는 다르다. 즉 지속적인 자본주의는 인간중심적이다. 지속적인 자본주의는 생태, 사회 자본 분배에서 자유 시장에 의존하지 않으며 직접적인 사회, 생태 비용과 혜택을 내부화하려 하지 않는다. 또한, 본래 합법적으로 사유화 또는 개인화되어 있는 자원을 분배하는데 있어 정부에 의존하지 않는다. 즉 사회주의적이지 않다.

많은 사람은 성장과 착취의 동기가 내제 되어 있는 자본주의가 도덕적이며 정당한 사회에 의해 제한되고 좌우될 수 있을지의 여부에 관해 의문을 제기한다. 물론 위험은 존재한다. 그러나 본래의 타고난 위험 요소에도 자본주의는 계속 고려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는 사유, 개인 경제에 합법적으로 속해 있는 자원을 분배함에 있어 효율성 측면에서 자본주의를 능가하는 경제 체제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제 결정은 어느 누구의 기본 사회권을 박탈하지 않으며 어떠한 사회적 책무를 회피하지도 않는다. 대부분의 경제 결정은 한 사회의 근본적인 윤리적 원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러한 결정은 논리적으로 개인, 사유 경제에 알맞다.

개인의 적법한 사용을 위한 자원 분배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신정주의를 채택했던 사회는 그들 국민의 생리적, 물질적 필요를 충족시킨 적이 없었다. 그러한 체계는 본래 경제 지속성이 부족하다. 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원래 갖고 있는 위험 요소에도 여전히 경제 지속성을 이루고자 하는 인류에 희망을 선사한다. 사회와 자연 생태계의 가능성과 잠재력은 경제의 생산성에 달려 있다. 자본주의는 부의 추구가 사회 착취나 미래 세대를 위한 기회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 한 사회 복지를 증대시키는 효율적인 방식을 계속 제공할 수 있다.

자본주의 경제국가의 지속성은 모든 경제 자본의 원천이 되는 그 나라의 사회, 생태 자본의 지속성에 달려 있다. 지속적인 자본주의는 경제 자본을 유지하기 위해 생태, 사회 자본의 끊임없는 회복과 재생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사회는 국민의 부와 번영을 지속시키기 위해 생태, 사회, 경제 자본을 개별적, 사회적, 생태적으로 관리해야만 한다. 지속적인 경제는 생산성 유지를 위해서, 죽어있는 체계가 엔트로피로 변하는 필연적인 경향을 상쇄하기 위해서 태양 에너지를 획득하고 저장하는 살아있는 체계의 원리에 의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지속성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는 삶의 패러다임에 기초한 새로운 경제 체제를 만들기 위해 생명 경제, 생명 문화, 생명 정치를 통합해야만 한다.

번역: 강연미, 한국외대통번역대학원